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현대 패션 주얼리 장식의 조형적 특성

임 시 은 · 주 희 영*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주얼리를 액세서리의 한 종류로 인식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 의복의 장식 요소로 활용된 사례를 통해 확장된 주얼리 장식의 개념과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먼저 주얼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 장식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의 S/S, F/W 컬렉션에서 보석, 금속, 비즈, 체인 등 다양한 소재의 주얼리를 주요 장식 요소로 활용한 여성복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149점의 컬렉션 이미지를 조형적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 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적 의미로서 표현 가능한 주얼리 특성은 반복성, 상징성, 공간성, 유동적 가변성이 있었다. 둘째, 액세서리의 한 종류로 활용되던 주얼리 장식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가 주얼리 장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 의복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얼리 장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개성 표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 패션디자인, 장식, 주얼리, 조형적 특성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1R1A6A3A01087164).

*교신저자: 주희영, juheeyoung@snu.ac.kr

접수일: 2022년 3월 28일, 수정논문접수일: 2022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5일

I. 서론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소재와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융·복합 현상에 의해 기존 형식의 해체와 탈경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패션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 및 인식의 변화가 패션디자인의 전형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탈경계 현상과 같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등장, 사회 문화 양식의 다양화에 따라 패션에 활용되는 재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패션디자인의 장식적인 요소에도 다양한 재료가 활용되고 있다.

의복에서 장식은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미적 요소인 동시에 착용자의 신분이나 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장식은 의복을 통한 신분 상승의 욕구, 타인과의 차별화에 대한 욕망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분과 부의 과시보다 미의 추구라는 목적을 주로 갖는다.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은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도우며, 정교한 장식 기법은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시선을 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Kim et al.(2009)은 장식이 의복 구성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미적 표현을 위해 의복의 장식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장식 위치와 방법은 의복의 구조와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패션의 유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순함과 복잡함이 교차되며 이루어졌고, 특히 장식 요소는 다양한 측면에서 유행을 반영해 왔다(Kim & Cho, 2005). 최근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되고 있는 장식의 소재인 주얼리(jewelry)는 귀금속 이외에 메탈, 나무, 섬유,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그 범주가 확장되었으며, 그 중에서 보석과 금속, 비즈, 체인 등은 의복의 보조

장식으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주얼리는 개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패션성과 표현성의 가치를 갖고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주얼리가 개발되면서 패션디자인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추세이며, 크기와 모양, 형태, 색상, 소재 등을 통해 감성을 표출하고 내면의 정서와 성향을 내포하기도 한다.

패션의 장식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복의 디테일에 대한 분류와 이를 응용한 작품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 장식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액세서리로 분류되었던 주얼리가 의복의 주요 장식요소로 진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장성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 Shin and Lee(2015)는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패션에서 주얼리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하여 소재와 상품 구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Lee and Nah(2016)는 주얼리의 일반적 개념의 확장과 수렴을 통해 경계가 모호해지는 블러(blur)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의복에서 주얼리 장식의 확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얼리 개념의 확장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패션디자인의 장식적 요소로서 주얼리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확장된 의미로서 주얼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얼리를 액세서리의 한 종류로 인식한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 의복의 장식요소로 활용된 사례를 통해 확장된 주얼리 장식의 개념과 조형적 특성을 규명하여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가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장식적 의미로서의 주얼리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를 포함한 장식의 개념과 유형, 주얼리의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최근 패션디자인에 장식적으로 활용된 주

얼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컬렉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 고찰과 이미지 수집을 통해 장식적 요소로 활용된 주얼리는 금속에 국한되지 않고 보석과 금속, 비즈, 체인 등 다양한 소재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컬렉션 이미지를 수집하고 조형적 특성을 분석할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S/S, F/W 컬렉션에서 의복의 주요 장식적 요소로 보석, 금속, 비즈, 체인 등 여러 소재의 주얼리 장식을 옷에 부착했거나 매달려 있는 형태로 활용한 사진 자료를 2021년 9월 6일~ 2021년 9월 25일까지 총 149점을 추출하였다. Kim(2007)의 근대 복식을 통해 본 주얼리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얼리를 소재와 형태, 색의 조형적 특성을 기준으로, Bae et al.(2011)의 친환경 패션 주얼리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네크리스의 길이, 라인, 색, 소재, 이미지, 모티프 등을 기준으로, Cho(2010)의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연구에서는 형태 및 실루엣, 색채 및 배색 관계, 소재, 문양, 장식으로 조형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복되는 조형적 요소인 형태와 소재, 색을 기준으로 하고, 의복에 배치된 형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얼리의 부착 위치를 고려하여 주얼리 장식의 범위와 형태의 확장, 조형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의 개념과 유형

Read(1984)의 저서 「디자인론」에 의하면, 장식은 일반적으로 특정 물건과 그 바탕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형태와 기능에 적합해야 하며 형태를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식은 형태를 강조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조형 요소이며(Shin, 2013), 예술 경험에 대한 창조적인 충동으로 장식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 Kim, 2021). 장식(裝飾)의 어원을 살펴보면 ‘장(裝)’은 차림, 차려입음, 감싸다, 집어넣다 등을, ‘식(飾)’은 댄다, 차려입다, 장식하다 등의 의미를 가져 신체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원시 초기에 장식은 과시를 목적으로 과도한 장식을 통해 부와 신분, 권력을 과시함으로써 타인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는 미를 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었으나 복식은 여전히 신분 상승의 욕구, 부의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Lee(2003)는 패션디자인에서 장식 분류의 기준을 표면의 장식과 디테일, 트리밍, 장식적 구성 등으로 분류하며, 의복의 장식을 구조적 장식과 응용 장식으로 분류하였다. Lee(2015)는 패션디자인에서 표면 장식의 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재단되기 이전의 소재 자체가 지닌 컬러 문양, 소재 자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의복의 일부로 바느질되는 퀼팅이나 털, 러플 등 장식적인 디테일을 이용하는 방법, 구조적으로 완성된 의복의 표면에 장식적인 트리밍이나 소재 등을 덧대는 형식이었다.

2.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의 정의 및 특성

주얼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귀금속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신구를 일컬으며 현대에는 장식성 이외에도 시대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변화한다. <Table 1>과 같이, Ryu(2012)의 연구에 따르면 주얼리는 보석류나 장신구를 의미하며, 사전적 의미로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 인체에 착용하는 장식 품으로 귀금속이나 보석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정

Table 1.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의 특성.

주얼리의 특성	정의	참고 문헌
신체 착용성	• 사람이 착용하는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장식품으로 금과 같은 귀금속 또는 보석 장식으로 제작되는 것	Ryu(2012) Lee and Nah(2016) 위키피디아
확장성	• 국한된 재료가 아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그 속성과 개성 있는 표현 효과의 가치를 둠. • 재료의 자유화	Lee and Nah(2016)
은유성	• 주얼리의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예술적 장식 기능을 강화하여 복식과 유사하거나 신체, 동물과 같은 형태로 변화	Hwang and Choi(2015)
통합성	• 주얼리와 복식, 주얼리와 신체의 새로운 공간 배열방식에 따라 기능의 통합에 따른 특성으로 주얼리와 복식의 물질적 요소들이 해체 및 재조합되어 새로운 형태미를 제시	

의된다. Lee and Nah(2016)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주얼리를 신체 착용성과 재료의 가치성, 개인성 등이 반영된 장신구로, 케임브리지 사전에서는 옷이나 신체에 착용 가능한 객체로 가치 있는 금, 은, 보석류를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위키피디아 사전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나무, 티타늄, 뼈, 클레이, 비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본드나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것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의복은 신체를 보호하며 장식의 기능도 수행하지만 주얼리는 의복의 하위 개념으로서 의복을 돋보이게 하는 부수적인 개념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는 이와 같은 부수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상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주얼리는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로서 활용되었고, 블러 개념을 통해 주얼리의 확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귀금속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그 속성과 개성 있는 표현 효과에 가치를 두어 '확장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재료의 자유화'라고도 표현하였다(Lee & Nah, 2016).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의복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주얼리 장식을 더하여 소재, 색, 부착 위치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국한된 재료가 아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확장성'이라

할 수 있다.

Hwang and Choi(2015)는 주얼리의 경계 흐려짐 현상, 즉 주얼리가 관습적 공간 배열방식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유기적 신체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환상을 실현하여 주얼리의 '은유성'과 '통합성'을 설명하였다. 즉, 주얼리의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예술적 장식 기능을 강화하여 복식과 유사하거나 신체, 동물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은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의복의 디테일이 중요한 조형 요소로 여겨지면서 경계의 흐려짐이 더욱 명시화되었고, 이를 통해 관습적인 요소를 분리 또는 재배열하여 주얼리에 새로운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통합성은 복식과 주얼리, 주얼리와 인체의 공간 배열방식에 따라 기능의 통합에 따른 특성으로 주얼리와 복식의 물질적 요소들이 해체 및 재조합되어 새로운 형태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패션 이미지를 창출하고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향력 있는 아이템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 선행 연구를 미루어 볼 때,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의 특성을 신체 착용성, 확장성, 은유성, 통합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디자인의 장식적 요소로서의 주얼리의 특성을 신체 착용성을 제외한 확장성, 은유성, 통합성을 기준으로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적 의미로서의 주얼리의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III.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얼리 장식의 범위와 형태의 확장

1.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적 의미로서 주얼리 특성

패션디자인의 주얼리 장식의 소재와 형태, 색, 부착 형식, 배치 방법에 따라 수집한 이미지를 분류한 결과,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적 의미로서 주얼리의 특성은 '반복성, 상징성, 공간성, 유동적 가변성'이라 할 수 있다(Table 2).

패션디자인에서 반복성이란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하여 하나의 단위가 되도록 하여, 큰 패턴을 형성하고, 그 패턴 자체가 디자인이 되며 부착 위치와 범위에 따라 하나의 면이 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선이 될 수도 있다. 또한 Kim and Cho(2005)의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선의 시각적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디자인에서의 형은 선으로 이루어지며, 선의 위치에 따라 '실루엣 선'과 '실루엣 안의 선'으로 분류하였다. 실루엣 선이란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의 외곽선을 지칭하고 의복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하며, Lee(1983)는 실루엣 안의 선을 반복과 연속에 의한 선으로 구분하였는데 반복에 의한 선은 형태, 소재, 색 등이 반복되어 시선이 이어지는 효과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주로 작은 단위의 주얼리의 장식을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 배열을 통해 전체의 패턴을 형

성하며 색과 부착되는 소재의 선택을 통해 장식의 형태가 하나의 면적을 형성하였다. 이는 과거 양식의 재인용과 경계 및 통합,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장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루엣 선과 실루엣 안의 선을 통합적인 특성을 '반복성'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Hwang and Choi(2015)의 연구에서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예술적 장식 기능을 강화하며, 신체의 일부 및 동물을 형상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주얼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장식적 요소로서 주얼리를 활용하였을 때, 부착 위치나 색, 형태를 통해 대상을 형상화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이를 '상징성'으로 명명하였다.

패션디자인에서 주얼리는 복식 또는 신체의 새로운 공간 배열방식에 따라 소재, 형태, 색, 부착 위치를 대상으로 그 기능화 새로운 형태미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얼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식적 요소로서 활용하면 공간성, 유동적 가변성을 표현할 수 있다. 공간은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선과 형, 색, 소재, 무의 등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하는가를 결정한다(Davis, 1990). 따라서 현대 의복의 디자인은 신체의 연장으로 의복 공간의 미학과 기능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패션은 신체를 둘러싸는 공간을 조성하며, 몸과 외부세계를 중재하는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 형태, 색, 소재를 활용하여 하나의 면을 형성하고, 몸과 의복 사이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Table 2.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적 의미로서의 주얼리의 특성.

주얼리의 특성	주얼리 장식의 특성	정의
확장성	반복성	• 형태, 소재, 색 등이 반복되어 시선이 이어지는 효과 • 과거 양식의 재인용과 경계 및 통합,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장식의 방향을 제시
은유성	상징성	• 신체의 일부나 동물을 형상화하여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한 예술적 장식 기능 강화
통합성	공간성	• 선, 형태, 색, 소재를 활용하여 하나의 면, 또는 입체를 형성하고,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
	유동적 가변성	• 엮거나 짜는 방식을 통하여 의외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 또는 이 형태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

‘공간성’으로 명명하였다. 유동적 가변성이란 적용되는 소재와 형태에 따라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옷의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Lee and Kim(2016)의 스트링의 표현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링을 엮거나 찢는 방식을 통하여 외위의 형태를 만들어 내거나 형태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고, 이는 시각적 자극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인, 비즈, 아크릴 등을 엮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선이 되게 형상화한 장식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유동적 가변성’으로 명명하였다.

2. 주얼리로 장식된 2020~2021 S/S, F/W 컬렉션 사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의 S/S 및 F/W 컬렉션에서 보석, 금속, 비즈, 체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옷에 부착했거나 매달려 있는 형태로 활용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장식적 의미로서의 주얼리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Table 3).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적 의미로서의 주얼리 특성은 반복성, 상징성, 공간성, 유동적 가변성이었다. 최종 선정된 30점의 디자인 중에서 소재, 색, 부착 위치에서 반복성이 보인 디자인은 먼저, 미우 미우(Miu Miu)의 2020년 제작된 상체 부위(Figure 3)나 어깨에서 무릎까지(Figure 4) 스와로브스키 장식이 더해진 드레스와, 발망(Balmain)의 2020년 F/W 컬렉션에서 드레스 전체에 진주를 비롯한 다양한 비즈 재료를 믹

Table 3.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얼리 장식의 사례.

주얼리의 특성	주얼리 장식의 특성	컬렉션 사례
확장성	반복성	 <p>Figure 1. Louis Vuitton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2. Balmain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a).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3. Miu Miu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a).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4. Miu Miu 2020 F/W-2.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b).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5. Lanvin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6. Richard Quinn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7. Mugler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8. Oscar de la Renta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9. Mugler 2020 F/W-2.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p>
		 <p>Figure 10. Paco Rabanne 2021 F/W-1. From Fall/Winter 2021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p>

은유성	상징성					
		Figure 11. JW Anderson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12. Area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a). http://runway.vogue.co.kr	Figure 13. Area 2020 S/S-2.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b). http://runway.vogue.co.kr	Figure 14. Schiaparelli 2021 F/W-1. From Fall/Winter 2021 ready-to-wear. (n.d.a). http://runway.vogue.co.kr	Figure 15. Schiaparelli 2021 F/W-2. From Fall/Winter 2021 ready-to-wear. (n.d.b). http://runway.vogue.co.kr
						
		Figure 16. Balmain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b). http://runway.vogue.co.kr	Figure 17. Schiaparelli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18. Christian Dior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s://www.vogue.com/fashion-shows	Figure 19. Salvatore Ferragamo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0. Lanvin 2021-1. From Spring/Summer 2021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1. Balmain 2020 S/S-2.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2. Marine Serre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3. Sportmax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4. Armani Prive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s://www.vogue.com/fashion-shows	Figure 25. Dolce Gabbana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스하여 고전적인 문양을 주얼리 장식으로 재해석하였다(Figure 2). 파코 라반느(Paco Rabanne)는 상의에 여러 종류의 비즈와 체인 장식으로 스토퍼의 형태와 유사하게 표현되었다(Figure 10). 2020년 S/S 컬렉션에서 루이 비통(Louis Vuitton)은 슬리브

리스 탑에 비즈를 지그재그 패턴의 형태로 장식하였고(Figure 1), 2020년 F/W 컬렉션에서 랑방(Lanvin)(Figure 6)과 리처드 퀸(Richard Quinn)(Figure 7), 뮈글러(Mugler)(Figure 8), (Figure 9)는 원피스 전체에 유광의 비즈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Figure 9).

2020년 F/W 컬렉션에서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는 드레스의 소매와 몸통의 실루엣을 따라 자연스러운 곡선의 주얼리 장식을 균일한 간격으로 반복하였다(Figure 8).

입체형 주얼리 장식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장식적인 사물의 형태를 구성하여 의복에 연결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착한 형태는 대상의 형태, 색, 부착 위치를 활용하여 표현되었다. 2021년 F/W 컬렉션에서 스기아파렐리(Schiaparelli)는 얼굴과 배 등 신체를 모티프로 활용한 주얼리 장식을 재킷과 니트에 부착하거나 폭이 넓은 벨트로 활용함으로써 유희적이고 독창적인 룩을 완성하였다(Figure 14), (Figure 15). 2020년 S/S 컬렉션에서 아레아(Area)는 수트의 허리 부분과 원피스의 상단에 체인을 연결한 새장 모양의 모티프 장식을 연결하여 컬렉션의 스토리를 담았고(Figure 12), (Figure 13), 제이더블유 앤더슨(JW Anderson)은 금속 소재를 이용하여 곡선 형태로 가슴을 형상화하여 드레스에 연결하였다(Figure 11).

주얼리를 연결하고 고정함으로써 운동성은 없지만 의복과 연결된 주얼리 장식에 의해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소재, 형태, 색, 부착 위치에 따라 공간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 F/W 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Figure 18)과 2021년 S/S 컬렉션에서 랑방(Figure 20)은 드레스의 상의 부분에 주얼리 장식을 스커트와 연결하여 장식과 장식 사이에 공간감이 나타났고,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Figure 19)는 원피스 몸판에 체인을 연결하여 체인과 체인 사이에 원단이 보임으로써 가변적인 공간성이 나타났다. 2020년 S/S 컬렉션에서 발망은 상의에 투명한 반구 모양의 장식을 연결하여 비침과 빛 반사를 통해 독특한 공간감을 표현하였으며 광택 있는 실버 팬츠를 매치함으로써 과거 사이버 펑크 룩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Figure 21). 2020년 S/S 컬렉션에서 스기아파렐리는 비침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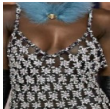
쉬폰 드레스 전체에 화려한 주얼리 장식을 더함으로써 의복과 인체 사이에 공간성을 나타냈다(Figure 16).

주얼리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착용 시 율동적인 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유동적 가변성을 가진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S/S 컬렉션에서 발망은 길쭉하고 다양한 색의 아크릴 소재를 연결하여 착용 시 율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Figure 21). 2020년 S/S 컬렉션에서 마린 세르(Marin Serre)는 두께와 길이가 서로 다른 체인을 믹스하여 상의에 이중적으로 연결하였고(Figure 22), 돌체앤가바나(Dolce & Gabbana)(Figure 25)는 F/W 컬렉션에서 크기가 다른 비즈를 연결하여 시스루 드레스 전체에 장식했으며, 스포트맥스(Sportmax)(Figure 23)는 원피스에 체인을 X자로 연결함으로써 움직임에 따른 유동적 가변성을 극대화하였다. 2020년 S/S 컬렉션에서 아르마니 프리베(Armani Prive)(Figure 24)는 길이가 긴 아크릴 비즈와 원형의 비즈를 연결하여 드레스의 네크라인부터 밑단까지 이어지도록 장식하였다.

3. 현대 패션디자인에 적용된 주얼리 장식의 조형적 특징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얼리 장식의 조형적 특징의 분류 기준이 된 소재, 형태(크기 및 배치 방식), 색과 장식적인 요소로서 조형적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주얼리의 부착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Table 4).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얼리 장식의 조형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얼리 장식의 특성으로 '반복성'을 들 수 있는데, 반복성이란 일정한 크기와 간격으로 배열하여 하나의 단위가 되도록 하며, 큰 패턴을 형성하고, 그 자체가 디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패션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장식적 요소 중 특히 주얼리는 하나의 단위로도 장식성을 갖지만 각 단위가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 디자인 전체 또는 부분

Table 4.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주얼리 장식의 조형적 특징.

주얼리 장식적 특성	이미지	조형적 특징			
		소재	형태 (크기 및 배치 방식)	색	부착 위치
반복성		비즈 진주 스와로브 스키	지그재그 좌우 대칭 규칙적 배열 패턴화	N1, N9 vv 5B, 5R, 5YR	상체 전신
	Figure 26. Miu Miu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7. Miu Miu 2020 F/W-2.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8. Miu Miu 2020 F/W-3.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29. Paco Rabanne 2021 F/W-1. From Fall/Winter 2021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0. Louis Vuitton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1. Lanvin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2. Richard Quinn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3. Mugler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4. Mugler 2020 F/W-2.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5. Oscar de la renta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6. Oscar de la renta 2020 F/W-2.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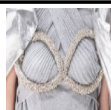


Figure 37. JW Anderson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8. Area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Figure 39. Area 2020 S/S-2.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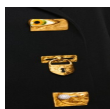


Figure 40. Schiaparelli 2021 F/W-1.
From Fall/Winter 2021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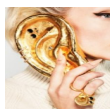


Figure 41. Schiaparelli 2021 F/W-2.
From Fall/Winter 2021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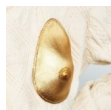


Figure 42. Schiaparelli 2021 F/W-3.
From Fall/Winter 2021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상징성

체인
금속

특정 대상을
형상화
비교적 큰
단위
입체적 구조

Gold
N8

목
귀
가슴
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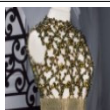


Figure 43. Christian Dior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s://www.vogue.com/fashion-sh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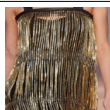


Figure 44. Salvatore Ferragamo 2020 F/W-1.
From Fall/Wint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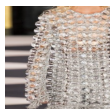


Figure 45. Balmain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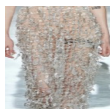


Figure 46. Schiaparelli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공간성

체인
비즈

방사형
레이어드
요소의
이어짐으로
하나의 면을
형성

dp 2.5GY
N7, N9

상체
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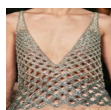


Figure 47. Lanvin 2021-1.
From Spring/Summer 2021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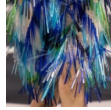


Figure 48. Balmain 2020 S/S-2.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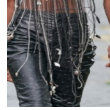


Figure 49. Marine Serre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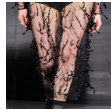


Figure 50. Dolce Gabbana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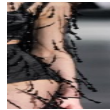


Figure 51. Dolce Gabbana 2020
S/S-2.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유동적
가변성

체인
아크릴

부분적 장식
레이어드
수직적 구조

N1, N9
dk 5PB,
vv 5B,
5G, 7.5BG

목선에
서
아래로
전신



Figure 52. Sportmax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runway.vogu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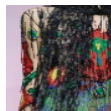


Figure 53. Armani Prive 2020
S/S-1.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s://www.vogue.com/fashion-sh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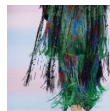


Figure 54. Armani Prive 2020
S/S-2.
From Spring/Summer 2020
ready-to-wear. (n.d.).
<https://www.vogue.com/fashion-shows>

적으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조형적인 배치와 다양한 주얼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오브제를 형성할 수 있다. 주로 비즈나 진주를 소재로 하여 상체 부분을 강조하거나, 전신에 규칙적 배열을 통해 패브릭의 패턴이 아닌 입체적 패턴을 형성한 디자인에서 반복성이 나타났으며, 주로 지그재그 형태나 특히 좌우 대칭의 형태와 규칙적 배열이 특징이다. 2020~2021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S/S, F/W 컬렉션에서 주얼리 장식을 활용하여 반복성이 가장 빈번하게 표현되었다(Figure 26-36).

상징성은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예술적 장

식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디자인 중 특정 대상을 형상화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과장되게 표현한 디자인이 있었다. 주얼리 중에서도 체인과 금속 소재를 이용하여, 꼬임이나 연결을 통한 입체적 형상을 만들거나, 특정 대상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키치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장식적 의미로서 주얼리의 특성을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큰 단위를 형성하고 다른 특성보다 목, 귀, 가슴, 허리 등 부착 위치에 의미가 크다(Figure 37-42).

패션은 본래 인체를 감싸는 작은 공간을 조성하는데, 선, 형태, 색, 소재를 활용하여 면을 형성

하고 몸과 의복 사이의 공간을 형성한다. 특히 장식적 의미로의 주얼리 장식은 엮기나, 이음, 또는 소재에 부착하여 넓은 범위의 장식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주얼리 중에서도 체인이나 비즈가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적절하고, 주로 방사형 배열이나 레이어드 방식을 이용하여 하나의 면을 형성하는 디자인이 많았다. 전신의 공간감을 형성하는 디자인이나 상의에 화려함을 더해주는 디자인도 다수 있었다(Figure 43-47).

소재와 형태에 따라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옷의 디자인에 변화는 주는 특성을 '유동적 가변성'이라 하는데, 패션디자인에서 이러한 디자인적 표현을 위해 주로 주얼리 장식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크기, 형태, 색상의 구현이 가능한 체인은 엮어서 입체적 형태나 직선 구조, 곡선 구조의 표현이 모두 가능하여 유동적 가변성을 표현하기 위해 특히 자주 사용되었다. 아크릴 소재 또한 다양한 색과 질감의 표현이 가능하여 다수 사용되었는데, 이는 부분적 장식이나 레이어드, 특히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여 옷을 입고 움직이면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자인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컬렉션 이미지에서는 특징적으로 목선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적 실루엣이 많았으며, 전신을 범위로 유동적 가변성을 표현한 주얼리 장식이 활용되었다. 2020년 이전의 컬렉션에서 주얼리 장식은 유동적 가변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비해 최근 컬렉션에서는 소재와 색의 활용이 다채로워졌고 반복성, 상징성, 공간성과 같이 보다 다양한 특성을 내포한 주얼리 장식이 나타났다. 이는 주얼리가 조형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의복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ure 48-54).

IV. 결론

본 연구는 주얼리가 의복의 장식적 요소로 활용된 현대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통해 주얼리 장식의 종류와 형태, 부착 형식 및 배치 방식에 따라 장식적 의미로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창의적인 패션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디자인에서 장식적 의미로서 표현 가능한 주얼리 특성은 반복성, 상징성, 공간성과 유동적 가변성이 있었다. 반복성은 특정 형태와 소재, 색 등이 반복하여 시선이 이어지는 효과를 의미하며, 상징성은 신체나 동물을 형상화하여 관습적인 형태를 탈피함으로써 예술적인 장식의 기능을 강화하는 특성이다. 면이나 입체 형태의 주얼리 장식이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형성하는 공간성과 제작 방법에 따라 의외의 형태를 만들어 내거나 유동적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유동적 가변성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주얼리 장식의 주요 소재와 형태를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주와 화려한 아크릴 비즈, 스와로브스키 등을 활용하여 상체를 강조하거나 지그재그 형태와 같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반복성이 나타났다. 상징성은 특정 대상을 형상화하거나 신체 일부를 과장되게 표현한 디자인으로 체인과 금속 소재를 활용하였다. 입체적 형상을 만들고, 특정 대상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키치한 느낌을 주었다. 주얼리 중 체인이나 비즈는 공간성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소재이며, 주로 방사형 배열이나 레이어드 방식을 이용하여 하나의 면을 형성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전신의 공간감을 형성하는 디자인이나 상의에 화려함을 더해주는 디자인도 다수 있었다. '유동적 가변성'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 색의 구현이 가능한 체인을 활용한 디자인이 가장 많았다. 아크릴 소재 또한 다양한 색과 질감의 표현이 가능하여 많이 활

용되었는데 부분적 장식이나 레이어드, 특히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여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주얼리 장식은 무채색이 가장 많았고, vv톤의 색이 많이 나타났다. N1, N7, N8, N9 등과 같은 무채색은 주얼리 장식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 나타났고, 상징성이 표현된 주얼리는 Gold가 많았다. 반복성과 유동적 가변성이 표현된 주얼리 장식은 vv톤의 5B, 5R, 5YR, 5G, 7.5BG 등이 나타났으며, 공간성은 dp톤의 비즈와 체인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주얼리는 패션디자이너의 장식적 요소로 조형적 특징과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액세서리의 한 종류로 활용되던 주얼리 장식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중요한 장식적 요소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2020~2021년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S/S, F/W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성복에 비해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성이 장식적 요소에 표현된 디자인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컬렉션의 디자인은 패션 트렌드에 반영되어 기성복 디자인의 바탕이 되므로 현대패션디자인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이너에게 주얼리 장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자 나아가 의복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얼리 장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개성 표현에 대한 니즈를 수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주얼리 장식에 대한 선호 조사와 디자인 관점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References

- Area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a). *VOGUE*. Retrieved September 6, 2021, from <http://runway.vogue.co.kr/2019/09/08/spring-2020-ready-to-wear-area/#0:29>
- Area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b). *VOGUE*. Retrieved September 6,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09/08/spring-2020-ready-to-wear-area/#0:6>
- Armani Prive spring 2020 couture.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6,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couture/armani-prive/slideshow/collection#76>
- Balmain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a). *VOGUE*. Retrieved September 8,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09/28/spring-2020-ready-to-wear-balmain/#0:73>
- Balmain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b). *VOGUE*. Retrieved September 8,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09/28/spring-2020-ready-to-wear-balmain/#0:77>
- Bae, J. H., Lee, K.-H., & Je, G.-Y. (2011).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fashion jewelry: With the Focus on Necklaces.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0(-), 285-294. doi:10.21326/ksdt.2011..30.026
- Cho, J. Y. (2010). *A study on the fashion accessories adapting surre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
- Christian Dior fall 2020 couture. (n.d.). *VOGUE Runway*. Retrieved September 10,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couture/christian-dior/slideshow/collection#34>
- Davis, M. L. (1990). *Visual design in dress* (3rd ed.). NJ: Prentice Hall PTR.
- Dolce Gabbana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2/24/ready-to-wear-2020-fw-dolce-gabbana-collection/#0:6>
- Hwang, Y. J., & Choi, J. H. (2015). A study on the blurring of boundary reflected in contemporary fashion jewelry design: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jewelry and costume or fashion jewelry and body.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7(1), 11-21. doi:10.5805/SFTI.2015.17.1.11
- Kim, E.-S., You, M.-L., & Bae, S.-J. (2009). A study on the detail & trimming from 16C to 18C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3(1), 125-140.
- Kim, J.-A. (2007).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ewelry in the early modern costume.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17(-), 157-166.
- Kim, M., & Cho, J.-Y. (2005). A analysis on the visual perception of decorative lines in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1(4), 14-21.
- Lanvin fall/winter 2021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5,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3/10/ready-to-wear-2020-fw-lanvin-collection/#0:53>
- Lee, E. Y. (1983). *복식의장학* [Costume chairology]. Paju:

- Gyomoon.
- Lee, E. Y. (2003). *복식디자인론* [The theory of clothing design]. Paju: Gyomoon.
- Lee, I.-S., & Kim, J.-Y. (2021). A study on the hot-fix decorations in knit fashion desig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9(2), 138-150. doi: 10.35226/kskd.2021.19.2.138
- Lee, J. W., & Nah, K. (2016). A study on the blur phenomenon through expanding and converging the concepts of jewel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2(2), 525-536. doi:10.18208/ksdc.2016.22.2.525
- Lee, J. Y., & Kim, J. H. (2016). String's expressive features reflected in the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3), 121-140. doi:10.18652/2016.16.3.8
- Lee, S.-H. (2003). A study on the ornaments in western dress history.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1(1), 20-46.
- Lee, U. Y. (2015).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development and total styling using curve type pleat. *Journal of Digital Design*, 15(3), 829-841. doi:10.17280/jdd.2015.15.3.079
- Miu Miu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n.d.a). *VOGUE*. Retrieved September 18,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3/10/ready-to-wear-2020-fw-miu-miu-collection/#0:63>
- Miu Miu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n.d.b). *VOGUE*. Retrieved September 18,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3/10/ready-to-wear-2020-fw-miu-miu-collection/#0:62>
- Mugler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9,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3/10/ready-to-wear-2020-fw-mugler-collection/#0:24>
- Oscar de la Renta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20,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2/18/ready-to-wear-2020-fw-oscar-de-la-renta-collection/#0:38>
- Paco Rabanne fall/winter 2021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21,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1/07/27/ready-to-wear-2021-fw-paco-rabanne/#0:0>
- Read, H. (1984). *Art and industry: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design*. San Francisco, Horizon Pr.
- Richard Quinn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22,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2/18/ready-to-wear-2020-fw-richard-quinn-collection/#0:48>
- Ryu, J.-M. (2012). A study on contemporary fashion jewelry design development using Korean traditional ornaments technique and materials.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5(2), 91-105.
- Salvatore Ferragamo fall/wint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0/02/24/ready-to-wear-2020-fw-salvatore-ferragamo-collection/#0:38>
- Schiaparelli fall/winter 2021 ready to wear. (n.d.a). *VOGUE*. Retrie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1/08/13/ready-to-wear-2021-fw-schiaparelli/#0:29>
- Schiaparelli fall/winter 2021 Ready to wear. (n.d.b). *VOGUE*. Retrie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1/08/13/ready-to-wear-2021-fw-schiaparelli/#0:15>
- Shin, H. K. (2013). Characteristics of hand-craft design with surface decoration in fashion handbag brand.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1(1), 197-206. doi:10.18852/bd ak.2013.11.1.197
- Shin, J. H., & Lee, H. K. (2015). A research on changes in modern fashion jewelry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1(4), 325-337.
- Erdem spring/summer 2021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1,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1/03/02/ready-to-wear-2021-ss-erdem/#0:0>
- JW Anderson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1,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09/17/spring-2020-ready-to-wear-jw-anderson/#0:23>
- Lanvin spring/summer 2021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5,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21/02/26/ready-to-wear-2021-ss-lanvin/#0:1>
- Louis Vitton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6,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10/04/spring-2020-ready-to-wear-louis-vuitton/#0:0>
- Marine Serre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8,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09/25/spring-2020-ready-to-wear-marine-serre/#0:5>
- Schiaparelli spring 2020 couture.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2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couture/schiaparelli/slideshow/collection#18>
- Sportmax spring/summer 2020 ready to wea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25, 2021, from <https://runway.vogue.co.kr/2019/09/21/spring-2020-ready-to-wear-sportmax/#0:22>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Fashion Jewelry Decorations as an Expanded Concept

Lim, Sieun · Joo, Heeyoung⁺

Adjunct Professor, Fashion Design, Keimyung University
Post Doctoral Fellow,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expanded concept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ewelry decoration for creative fashion design through the cases of utilizing jewelry as a decorative element of clothing rather than the universal concept regarding it as a type of accessory.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ies, first, the concept and types of jewelry were theoretically considered. In addition,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jewelry decor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is study extracted the images of women's clothing using jewelry made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jewel, metal, bead, and chain as main decorative elements in S/S and F/W collections of New York, London, Paris, and Milan from 2020 to 2021. This study analyzed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otal 149 collection images according to their formative elements.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jewelry that could be expressed as a decorative meaning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included the repeatability, symbolism, spatiality, and fluid variability. Second,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jewelry decoration which was used as a type of accessory could be expansively utilize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the data helpful for designers to develop such creative designs using jewelry decorations. Moreover, it could be also helpful for developing fashion design suitable for consumers' needs of individuality expression by verifying the possibility of various jewelry designs applicable to clothing.

Key words : fashion design, decoration, jewelry, formative characteristics

